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ttern of Housewives'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학교육전공
석사 정현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강사 구혜령*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

Master student : Hyun Hi, Jeong

Dept. of Consumer Studies and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

Lecturer : Hye Ryoung, Ko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attern of housewives'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attern.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340 housewives living in Seoul area.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frequency, percentage, oneway ANOVA, DMR-test, and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52.6% of respondents participated in social education, only 20.8% in volunteer work. And a large number of housewives(77.6% of respondents) wanted to get a job.
- 2) Housewives were classified into job-demand group, job-apathy group and social activity oriented group by the pattern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these groups were differed by Age, income, degree of satisfaction as a housewife, time

* 연락처자: 구혜령 (helen1126@hanmail.net)

constraints, and money constraints.

Key Words : social education, volunteer work, job demand

I. 서론

여성의 취업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1년 현재 전체 여성의 48.8%에 이르고 있다. 이를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0%, 기혼여성의 참가율은 48.1%(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인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 즉 주부의 반 가량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여성이나 주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 연구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고용과 관련된 이슈나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위한 지원을 모색하는 방안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의 관심이 취업여성에 집중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 주부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업주부에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주로 소비활동의 주체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크다. 가정관리학에서의 전업주부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대개 가정에서의 역할이나 행동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실태나 요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전업주부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앞서, 여성들이 전업주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업주부 중에는 가정살림에 대한 선호와 관심, 가족에 대한 몰입을 이유로 전업주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에서 다른 대안을 뚜렷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여러 제약요건 등

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전업주부를 선택하거나 전업주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후자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전업주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주부 개인의 삶 뿐 아니라 가정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실태와 관련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부들에게 가정과 사회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의 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사 영역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전업주부들의 요구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높이는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장되어 있는 여성의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자원활용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II.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활동 영역 중에서 사회교육, 자원활동, 경제활동에의 참여실태와 관련요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세 가지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주부들의 각 활동에의 참여 동기나 참여 수준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영역의 사회활동의 참여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세 영역의 참여실태를 밝힌다는 점에서 탐색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1.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실태

장혜경·김영란(2000)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3.5%의 주부가 '문화·교양·학습활동', '아파트 부녀회·동네 통반장 등 지역활동', '학부모 모임, 운영위원회 등 자녀교육 지원활동', '사회봉사활동 또는 자원활동', '사회단체 참여 활동',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 등의 정치 참여'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교양학습활동', '자녀교육 지원활동'의 참여수준이 높았다.

김혜연·김순미(1997)의 전업주부의 취업의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592명 중 25.2%인 149명은 취업의사가 있는 반면, 나머지 74.8%인 443명은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선·이수경(2000)의 연구에서는 현재 비취업 상태에 있는 259명의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취업희망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4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여성들의 움직임도 늘어가고 있다. 백화점 문화센터, 복지관, 평생교육원,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수연(2001)은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교육빈도는 주당 2-3번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1개월 교육비는 10,000원-30,000원 사이와 30,000-50,000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100,000원 이상도 9.6%가 되었으며 반면에 무료도 13.7%나 되었다.

한편 자원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보고서(1993)에 따르면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에 등록된 1,074명의 여성자원 활동자 중 기혼여성이 전체의 9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전국에서 운영되는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 등록된 여성자원 활동자 수는 1996년 41,148명에서 1997년 65,757명, 1998년 말 91,52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정무장관실, 1996, 1997;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비경제적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중 앞으로 희망하는 활동으로 자원활동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꼽은 주부가 전체 응답자 중 34%로 가장 많았다(김경애 외 3인, 1999). 또한 여성들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일로 자원봉사활동을 꼽았다는 기사(한겨레신문, 2001년 9월 25일) 앞으로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 준다. 한편 여성들은 사회복지 분야의 단순 자원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김성경, 1999; 김소영, 1999)

2. 사회활동 참여의 관련요인

1) 연령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가 증가하나, 중년기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백종혜, 1995; 임성숙, 1993; 조휘일, 1990; 최현기,

1992; 한국여성개발원, 1994)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역 U자 곡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에의 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연·김순미, 1997). 이는 나영선·이수경(2000)의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생애사건을 기준으로 1단계(20-24세의 여성, 취업준비 및 취업단계), 2단계(25-34세의 여성, 결혼, 출산, 육아의 생애사건에 직면한 시기), 3단계(25세 이후의 여성, 육아가 종료된 후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기타 사회활동 요구가 증대하는 시기)로 분류하고 취업요구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자녀양육의 책임이 비교적 줄어든 3단계의 여성들이 2단계의 여성보다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혹은 사회적 지원체제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수의 전업주부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일 것이다.

2) 교육수준

교육수준 역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성숙, 1993; 장묘옥, 1992; 김혜경, 1998).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육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활용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원활동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김용자, 1984).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중 고졸이하 여성의 42%가 취업을 원한다고

하였는데, '가정경제를 돕기 위해서' 취업을 원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의 37%가 취업을 원한다고 하였는데, '경제 자립을 위해서' 취업을 원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고졸이하 여성의 취업이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과 사회교육 참여간에도 관계가 있다. 이정미(2000)에 의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아진다고 한다.

3) 가계소득

이정미(2000)는 생활 수준별로 사회교육 참여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사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하층 이하라고 응답한 집단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하층의 36.4%만이 사회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상층의 78.7%가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라 사회교육 참여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과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소득이 많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김용자, 1984; 장묘옥, 1992)도 있고 자원봉사활동은 소득이 낮은 집단이 더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결과(김경아·이정우, 1990)도 있다.

4) 금전제약

장혜경·김영란(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0.6%를 차지하였다. 광봉신(2000)의 연구에서도 교육비 부담이라는 요소가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나영선·이수경(2000)은 '가정경제를 돕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등의 경제적인 이유에서 취업하려는 전업주부가 전체 응답자의 86%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가 반드시 금전적인 제약과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경제적인 이유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시켰다.

5) 시간제약

여러 연구에서 시간제약으로 인해 사회교육의 참여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송정애, 1993; 양윤생, 1999; 고보선, 2000; 이정미, 2000). 한국여성개발원의 국제세미나 '21세기 한·일 여성 평생교육의 현황과 전망'(2001)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전업주부 만족도

전업주부 만족도와 사회활동참여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없지만 두 변수간에는 다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취업을 원한다는 연구(나영선·이수경, 2000)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업주부로 살아가기보다는 취업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업주부 만족도와 자원활동 및 사회교육의 참여 정도간에는 위와는 다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업주부들은 시간을 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회가 된다면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가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고 금전적인 제약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교육이나 자원활동에 참여하면서 전업주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원활동이나 사회교육 참여수준과 전업주부만족도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 1-1. 전업주부의 사회교육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 1-2. 전업주부의 자원활동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 1-3.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요구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활동 참여 실태에 따라 전업주부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 2-1. 사회활동 참여 실태에 따라 전업주부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 2-2.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2. 용어의 정의 및 조사도구의 작성

1) 사회활동 참여 실태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 중 사회교육, 자원활동, 경제활동에 국한하고, 사회교육과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가진 경우를 사회활동 참여 실태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제활동 참여 요구를 사회활동 참여 실태에 포함시켰다. 사회교육이란 일반 사회인 또는 국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으로 각급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와 각 산업체 및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사업을 의미한다. 자원활동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공적·사적 조직에서 경제적 대

가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활동 참여 실태는 사회교육 참여 여부, 자원활동 참여 여부, 경제활동 요구 여부로 측정하였는데, 사회교육이나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1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고, 경제활동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1점,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2) 시간제약

시간제약척도는 구혜령(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시간부족, 바쁘다는 느낌의 정도나 시간에 대한 부담감의 정도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에 4점, '그런 편이다'에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3점에서 1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시간제약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는 .84로 나타났다.

3) 금전제약

금전제약척도는 조영희(199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금전부족, 소득대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 저축여유 부족에 대한 정도를 묻는 4문항으로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에 4점, '그런 편이다'에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4점에서 1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금전제약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는 .84로 나타났다.

4) 전업주부만족도

전업주부만족도 척도는 장혜경·김영란(200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해 묻

는 주관적 감정상태에 대해 묻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에 4점, '그런 편이다'에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2점에서 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전업주부로서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는 .81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과 분당, 일산의 신도시에 거주하는 20-60대 전업주부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01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조사요원에게 연구의 목적,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때 조사대상자의 거주지가 서울의 강남·분당에 50%, 서울의 강북·일산에 50%가 되도록 주의하였다. 둘째, 주부대상의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본 연구에 대한 공고를 한 후, 지원자를 중심으로 하여 온라인 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총 400부가 배부되고 35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34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40부 중에서 50부는 온라인 상에서 수집된 것이다.

2) 자료분석 방법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회활동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사회활동 참여 실태에 따라 주부를 집단별로 유형화하기 위해 군

집분석을 실시였으며,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유형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분석을 사용하였다.

보면 100-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의 비중이 각각 35.2%, 32.4%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종은 자영업이 24.6%로 가장 많았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9.5세이며, 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41.3%로 가장 많았다. 평균 가족원수와 자녀수는 각각 3.7명, 1.7명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의 연령은 평균 11.6세로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가 전체의 32.1%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561,455원이며 그 분포를

IV. 연구결과

1. 사회활동 참여 실태

1) 사회교육 참여 실태

전체 응답자의 52.6%가 사회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수강에 드는 시간은 주당 평균 4.99 시간이었으며, 주당 2시간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많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연령	20-29세	58(17.2)	막내자녀 연령	만 6세 이하	97(32.1)
	30-39세	108(32.0)		만 7-12세	60(19.9)
	40-49세	125(37.0)		만 13-18세	78(25.8)
	50세 이상	47(13.9)		만 19세 이상	67(22.2)
	계	338		계	302
교육수준	중졸이하	13(3.8)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20(6.2)
	고졸	13(39.2)		100-200만원	114(35.2)
	전문대졸	53(15.6)		200-300만원	105(32.4)
	대졸이상	140(41.3)		300-400만원	42(13.0)
	계	339		400만원 이상	43(13.3)
가족수	2명	29(8.6)	남편 직종	생산직·판매직	39(11.7)
	3명	88(26.0)		자영업	82(24.6)
	4명	178(52.5)		사무직	64(19.2)
	5명 이상	44(13.5)		경영관리직	57(17.1)
	계	339		전문직	50(15.0)
자녀수	0명	28(8.3)	자유직	25(7.5)	
	1명	89(26.3)	기타	17(5.1)	
	2명	182(53.8)	계		
	3명 이상	39(11.6)	계		
	계	338	계		

다. 또한 교육에 드는 비용은 월 평균 57,700 원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30,00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2> 참조).

2) 자원활동 참여 실태

자원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0.8% 이었으며, 이들이 자원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월평균 8.97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계속 자원활

동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자원활동 참여자의 활동분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에 주부의 자원활동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서울시장 개발연구원, 1995; 김성경, 1999; 김소영, 1999)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사회교육 참여 비율·시간·비용

항 목	구 분	빈 도(%)
사회교육 참여 비율	참여함	179(52.6)
	참여하지 않음	161(47.4)
	계	340(100.)
사회교육 참여 시간	주 2시간 이하	43(24.5)
	주 3-4시간	55(31.3)
	주 5-6시간	36(20.5)
	주 7시간 이상	42(23.9)
	주 평균 4.99 시간, 최빈값 주 2시간	
사회교육 참여 비용	월 2만원 이하	29(16.7)
	월 3-4만원	53(30.5)
	월 5-6만원	40(23.0)
	월 7-10만원	32(18.4)
	월 11만원 이상	20(11.5)
	월평균 55,700원, 최빈값 월 30,000만원	

<표 3> 자원활동 참여 비율·시간·지속여부

항 목	구 분	빈 도(%)
자원활동 참여 비율	참여함	70(20.8)
	참여하지 않음	267(79.2)
	계	337(100.)
자원활동 참여 시간	월 4시간 이하	22(31.8)
	월 5-8시간	20(28.9)
	월 9-16시간	19(23.2)
	월 17시간이상	9(15.7)
	계	70(100.0)
월평균 8.97시간		

3) 경제활동 요구 실태

취업을 원한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77.6%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 주부들의 취업요구도가 취업경험이 없던 주부들에 비해 높았다¹⁾. 취업을 원하는 주부들의 요구임금은 월 평균 1,239,400원이었고, 취업희망자의 35%가 전문직, 25.8%가 사무직, 17.2%가 생산직이나 판매서비스직에 취업하기를 원하였다. 또한 정규직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취업희망자의 35.2%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32.4%나 되었다(<표 5> 참조).

1) 사회활동 참여 실태에 따른 유형화

사회교육 참여 여부, 자원활동 참여 여부, 경제활동 요구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차원의 조합을 통해 8개의 집단부터 3개까지의 집단으로 유형화시키고, 각 경우의 빈도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세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채택하였다.

사회활동 참여 실태를 세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추후검증인 DMR-test를 하였다. 그 결과,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세 집단 간에 유의

<표 4> 자원활동 참여 분야

활동 분야	빈도(%)
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봉사, 세탁·목욕, 이미용 등 생활봉사)	37(52.9)
환경(재활용품수거, 놀이터·공원관리, 환경감시, 환경교육)	8(11.4)
교육(학생자원봉사지도, 특별활동지원, 상담서비스)	5(7.1)
행정(행정보조, 후원자관리, 컴퓨터 관련업무 등)	5(7.1)
교통(교통정리, 교통교육, 교통관련 캠페인, 녹색교통운동)	4(5.7)
상담활동	4(5.7)
정치(부정선거감시, 목계몽·홍보, 사무보조)	2(2.9)
보건·의료(간병, 호스피스활동, 보건교육, 의료봉사)	1(1.4)
재가복지서비스(식사, 가사도우미 등)	1(1.4)
기타	3(4.3)
계	70(100.0)

2. 사회활동 참여 실태에 따른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본 절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실태의 세 차원인 사회교육 참여 여부, 자원활동 참여 여부, 경제활동 요구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하여 조사대상자를 유형화한 후, 각 유형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표 6>참조).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교육 참여 차원의 경우, 집단 1의 점수가 집단 2와 집단 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1에 속하는 조사대상자들이 사회교육에 많이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자원활동 참여 차원의 경우, 집단 1의 점수가 1.00이므로 이 집단에 속한 전업주

1) 취업경험이 있는 주부의 76.0%가 취업을 원하였고, 취업경험이 없는 주부의 44.8%가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취업요구 비율·희망 직종·희망 근무형태

항 목	구 분	빈 도(%)
취업요구 비율	취업하겠음	264(77.6)
	취업하지 않겠음	76(22.4)
	계	340(100.0)
취업경험에 따른 취업요구	취업경험 유·취업요구 유	199(61.5)
	취업경험 무·취업요구 유	30(9.1)
	취업경험 유·취업요구 무	63(19.1)
	취업경험 무·취업요구 무	37(11.2)
	계	329(100.0)
요구임금	90만원 이하	18(9.1)
	100만원	95(48.0)
	120-140만원	27(13.6)
	150만원	31(15.7)
	160만원이상	27(13.6)
	계	198(100.0)
월평균 1,239,400원		
희망 직종	생산직·판매서비스직	36(17.2)
	자영업	35(16.7)
	사무직	54(25.8)
	전문직	73(34.9)
	기타	11(5.3)
	계	209(100.0)
희망 근무형태	정규직	77(35.2)
	시간제	71(32.4)
	재택근무	36(16.4)
	자영업	35(16.0)
	계	219(100.0)

부는 전부 자원활동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집단 3의 점수는 0.00으로 나타나 여기 속한 전업주부는 자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취업요구의 차원에서는 집단 2, 집단 1, 집단 3의 순으로 취업요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화 작업을 거친 후에, 3개 집단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각 유형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집단 1에 속한 조사대상자는 자원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고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경향도 낮은 반면, 취업에 대한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집단의 명칭을 '취업요구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사회교육과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은 높지만 취업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는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의 명칭을 '취업무관심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사회교육과 자원활동에 참여는 경향도 높고 전원이 취업을 원하는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의 명칭을 '사회활동지향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6> 각 집단별 사회활동 참여 차원의 점수와 일원분산분석결과

	집단1 (N=233)	집단2 (N=52)	집단3 (N=41)	전체 (N=326)	F값
사회교육 참여 (DMR-test)	0.39 a	0.92 b	0.83 b	1.47	40.369***
자원활동 참여 (DMR-test)	0.00 a	0.52 b	1.00 c	1.79	508.050***
취업요구 (DMR-test)	0.80 b	0.00 a	1.00 c	1.30	135.230***

***p<.001

† 사회교육과 자원활동에 참여하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1점', 각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집단별 평균점수는 0점에서 1점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1점에 가까울 수록 참여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활동 참여 유형별 특성

사회활동 참여의 유형에 따라 주부의 개인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고 추후검증으로 DMR-test를 실시하였다. 주부의 개인적 특성에는 주부의 연령, 학력수준, 가계소득, 전업주부만족도, 시간제약, 금전제약을 포함시켰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주부의 학력을 제외한 다른 특성들이 차이를 보인다.

유형에 따른 주부 연령의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무관심 집단과 사회활동지향 집단의 연령이 취업요구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취업무관심 집단의 평균 연령은 44.3세, 사회활동지향 집단은 41.9세, 취업요구 집단은 37.9세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경우, 취업요구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전업주부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취업무관심 집단의 만족수준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무관심 집단이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에 가장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제약의 경우, 사회활동지향 집단이 취

업요구 집단이나 취업무관심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교육과 자원활동의 참여에 따른 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금전제약은 사회활동지향 집단이 취업무관심 집단에 비해 높았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요구 집단의 경우, 주부들의 평균 연령은 37.9세로 세 집단 중 가장 어렸고, 가계소득은 월평균 2,394,600원으로 세 집단 중 가장 작았으며, 전업주부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이 집단의 시간제약수준과 금전제약수준은 취업무관심 집단보다는 크고 사회활동지향 집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 속한 주부들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여성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비해 월평균 소득은 낮고 금전제약이 크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집단이 취업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까닭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를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

<표 7> 사회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개인적 특성

		평균	DMR Test	F 값	Sig.
연령	취업요구 집단	37.9	b	13.680***	.000
	취업무관심 집단	44.3	a		
	사회활동지향 집단	41.9	a		
학력	취업요구 집단	3.97	-	.108	.898
	취업무관심 집단	3.92	-		
	사회활동지향 집단	4.03	-		
가계소득	취업요구집단	239.46	b	3.914*	.021
	취업무관심 집단	291.88	a		
	사회활동지향 집단	287.69	a		
전업주부만족도	취업요구 집단	5.24	b	9.205***	.000
	취업무관심 집단	6.18	a		
	사회활동지향 집단	5.18	b		
시간제약	취업요구 집단	7.29	b	4.825**	.009
	취업무관심 집단	6.65	b		
	사회활동지향 집단	8.08	a		
금전제약	취업요구 집단	10.56	ab	4.421*	.013
	취업무관심 집단	9.54	b		
	사회활동지향 집단	10.98	a		

***p<.001, **p<.01, *p<.05

다. 이들의 연령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젊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로 인해 취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교육 참여수준과 자원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금전제약과 낮은 소득, 그리고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비롯된 시간제약은 사회교육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활동을 하는 데는 사회교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지만, 자녀양육에서 오는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자원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무관심 집단의 경우, 이 집단에 속하는 주부들의 평균 연령은 44.3세로 세 집단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가계소득은 월평균 2,918,8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업주부 만족도도 세 집

단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간제약수준과 금전제약수준은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 속한 주부들은 가계소득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금전적인 제약은 비교적 적으며, 연령은 많아서 자녀양육 등의 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교육에 참여하거나 자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유시간을 보낼 것이고, 이러한 조건들이 취업하지 않아도 전업주부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고 하겠다.

사회활동지향 집단에 속하는 주부들의 평균 연령은 41.9세로 취업요구 집단보다는 많았고 취업무관심 집단보다는 적었다. 이들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2,876,900원으로 취업요구 집단보다 많았으나 금전제약 수준은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업주부만족도 수준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시간제약 수준은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은 취업무관심 집단과 비교할 때 소득수준은 비슷하지만 금전제약은 크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교육에 참여하고, 자원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취업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업주부로서의 만족도는 낮다고 하겠다. 혹은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것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편 시간제약이 세 집단 중 가장 큰 이유는 사회활동에 참여에 따른 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 주부의 52.6%가 사회교육 참여하고 있었고 자원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0.8%로 나타났으며, 77.6%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 수준은 김혜연·김순미(1997)의 25.2%, 나영선·이수경(2000)의 40%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아니지만, 조사대상자의 77.6%가 취업을 원하고 있고 기혼 여성의 취업율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여기에서 취업을 원하는 집단(취업요구집단·사회활동지향집단)과 취업을 원하지 않는 집단(취업무관심집단)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집단은 전업주부만족도와 금전제약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전업주부만족도와 경제활

동 참여 요구와의 관계를 보면, 취업을 원하는 집단은 사회교육이나 자원활동에의 참여와는 관계없이(즉 사회교육이나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것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통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금전제약이 크다고 지각하는 집단이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들의 취업요구가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취업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계에 곤란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금전제약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혹은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제활동 참여 의사가 실제 경제활동의 참여로 이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주부들이 가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혹은 사회적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취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취업을 원하는 주부에게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원만히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적인 안정도 이루고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무관심집단의 전업주부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통해 경제활동에 아닌 참여하지 않은 전업주부들도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면서 만족스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무능력한 집단이 아니고 다른 영역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참여욕구도 충족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업주부가 처한 상황이나 각

각의 요구에 맞추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활동 중에서 사회교육과 자원활동 참여, 경제활동 요구를 중심으로 전업주부를 유형화하였으나, 집단 간의 특성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고 이론적인 근거가 미약한 탐색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전업주부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가족관련 특성, 주부가 속한 계층의 특성에 따른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실태를 다루고, 참여 요구가 실제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보선(2000). 제주지역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pp.61-84.
- 2)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경아·이정우(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Stress 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01-117.
- 4) 김경애·김종미·이재인·박진경(1999). 주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여성민우회.
- 5) 김성경(1999). 여성자원활동의 현황과 육성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6) 김소영(1999). 주부 자원활동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용자(1984). 우리나라 주부의 자원봉사 참여 판별에 관한 분석. 아세아여 성연구 12.
- 8) 김혜경(1998).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판별요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김혜연·김순미(1997). 비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의사와 영향요인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2), 81-94.
- 10) 나영선·이수경(2000). 여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교육체제 구축 방안 에 관한 연구. 교육부 여성교육 정책연구.
- 11) 백중혜(1995). 주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용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13) 이정미(2000). 여성의 평생교육에 관한 의식분석.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임성숙(199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신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대구 대 석사학위논문.
- 15) 장묘옥(1992). 상담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6) 장혜경·김영란(2000).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7) 정무장관실(1996). 여성백서
- 18) _____(1997). 여성백서
- 19) 조영희(1995). 도시주부의 지출행동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 최현기(1992). 주부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 21)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 22) 한겨레신문(2001). 9월 25일자.
- 23) 한국여성개발원(1993).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
- 24) 한국여성개발원(1998).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 여성단체의 역할과 정책지

원방향.

- 25) 한국여성개발원(2001). 21세기 한·일 여성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 한일국제세미나.